

“외식업 118명 지방선거 당선… 힘 보여줄 것”

시경초대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 인터뷰

지난 2년간 코로나의 긴 터널은 자영업자들에게 약풍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외식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 심각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회원 118명을 당선자로 배출하는 기업을 토해냈다. 국내 최대 이해단체 중 하나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을 만났다.

지난 해 7월 27대 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해 달라

1983년 동해상사를 개업하고 지금까지 38년여 동안 업소(일식집)를 운영해 왔다. 2009년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지회장을 역임해 2021년 4월까지 3선을 연임했으며, 중앙회 부회장, 중앙교육원장을 맡아 중앙회 주요 요직을 두루 맡아왔다. 현재는 판교에서 ‘오감혹돈’이라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0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치안전분과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외식업계의 입장은 어떤가

소급적용 등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수십조원을 뿌렸다. 공무원들에게도 100만원씩이라는 공돈을 퍼줬다.

공무원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재난지원금을 주나?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형행위를 한 것 아닌가? 그 와중에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은 관심밖의 일이 돼 버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언행으로 보면 자영업자와의 약속을 충분히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치솟고 있다.

직장인들은 우스갯소리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고 하더라. 얼마 전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음식값 인상된 것 언급하지 말라 달라고 얘기했다. 외식업자들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비쳐질 수 있다. 4년간 최저임금 오른 것만 무려 42%에 달한다. 외식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이라는 공돈을 퍼줬다. 공무원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재난지원금을 주나? 그 와중에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은 관심밖의 일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사진=시장경제DB

물가인상 주범은 최저임금, 외식업자 탓 아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식업자들의 힘’ 증명 정부가 보듬지 못하는 소외계층 봉사활동 희망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식업중앙회원이 이 상당히 많이 당선됐다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외식업자들이 힘을 가지려면 바닥부터 다져야 한다고 회원들을 설득했다.

외식업자들에게는 법을 다루는 국회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도 중요하

다. 현직회장 입장에서 외식인들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올바른 이끌어 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오는 7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다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 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소에 최저임금에 대한 각종 통계를 뽑아보라고 지시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정부와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가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식업중앙회 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외식인들이 대거 진출한 이유 중 하나도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지역구에서 외식인들이 힘을 가져야 한다.

지난 5월 13일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제11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식품안전 관리유공으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외식업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와 협력해 ‘방역물품 지원’, ‘예방접종 독려’ 등 다양한 활동과 식품위생관리 자율지도를 통해 외식업소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민 등 음식배달 플랫폼 때문에 외식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배달플랫폼은 가만히 앉아서 시스템만 연결해 주며 외식업 마진의 35%를 떼 간다. 땀방울 안 흘리면서 돈을 버는 불한당들이다. 플랫폼끼리 경쟁을 하느라 배달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

그 와중에 외식업자들의 고통은 두배, 세배로 늘어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소비자가 배달비를 전액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국회에서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중앙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역대 중앙회장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점 경영을 하지 않는 ‘명목만 사장인’ 사람들이 많았다.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서빙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보아야 한다. 외식업중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해단체이다.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해 많은 방안을 만들고 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랐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아 회장에 취임하고 ‘행복한 한끼 사랑나눔’이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정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외되어 봉사활동하는 외식업자들이 많다. 중앙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된다.

김홍수 기자 hskim@economynews.com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한도 1000만원→2000만원 확대

중기부, 특례보증 확대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가능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대출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대상이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지원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원 한



도로 5년 동안 상환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인 브릿지보증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해당 보증은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희정 기자

에너지 25% 개선한 기업·가정에 혜택

기업은 자발적 협약 가정은 에너지캐슈백 제공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와 에너지 효율 협약을 체결하고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 에너지캐슈백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20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을 절감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량 2200만TOE는 서울시가 약 6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이다. 에너지원 단위의 경우 2027년까지 2019년 대비 25%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로 목표를 달성할 경우 G7 평균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연간 20만TOE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가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선 현재 3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슈백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체대형건축물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재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정 기자

BANOBAGI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바른 더마, 바노바기

젤리마스크 누적 판매량 3,000만장 돌파

태국 왓슨스 3년 연속 마스크팩 부문 1위

WATSON'S HWB AWARDS 2020

WATSON'S HWB AWARDS 2021

WATSON'S HWB AWARDS 2022

Right Derma

080-890-6508

www.banobagicosmetic.com